

어린이 책꽂이



▲고양이와 악마=짧은 예술가들의 초상 '올리시스' 등을 낸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쓴 유일한 동화. 그가 1936년 자신의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던 이야기다. 강을 건널 다리가 없는 프랑스 어느마을에 하룻밤 만에 다리가 놓이게 된 놀라운 사연을 담았다. 동화답게 매우 짧고 재미난 내용이다. <문학수첩리플북·9000원>



▲우리 동네 미자씨=작가 유은실의 신작 동화. 보증금 100만원짜리 방에 혼자 사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미자씨를 통해 삶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얘기한다. 주인공 조카 성지와 미자씨가 짝사랑하는 부식자 장수 등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 여가를 기대며 사는 훈훈한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낮은산·8800원>



▲우정의 힘=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재학 중인 오원석 군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동화. 학교 웹사이트에 연재한 글을 오 군의 어머니가 엮어냈다. 주인공 원서가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동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모험 이야기다. 원서 일행은 여러 위기를 겪지만 우정의 힘으로 이겨낸다. <세종꿈나무·9000원>



▲아이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도깨비 이야기=사람도, 귀신도 아닌 도깨비는 과연 무엇일까. 도깨비불은 무슨 색깔까. 우리민족의 삶과 생활, 역사를 쉽게 풀어쓴 이이화씨가 아이들의 도깨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우리나라 화살살의 역사를 쉽게 설명한 '뒷간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피라새·1만1000원>



▲분수의 비밀='책공 어린이' 시리즈 9번째 권. '생의 한가운데'의 작가 루이제 린저가 처음으로 쓴 장편동화다. 어느 날 갑자기 수지의 쌍둥이 동생인 닉이 행방불명되고, 마을 광장에 있는 오래된 유물인 분수대 사자 상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다음부터 마을에는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책공나무·9800원>



▲사과 할까? 말까?=머리가 좋아지는 동화 시리즈 중 판단력을 키워 주는 그림책이다. 봄이와 아리는 벼룩시장에 가기로 했는데 이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책을 넘길 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들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로, 읽는 재미와 생활 속 지혜를 함께 길러 준다. <아르볼·9500원>



▲걱정 토끼 공공이=걱정대장 '공공이'는 걱정을 달고 다니는 아기 토끼다. 어떤 어디든 걱정거리가 찰싹 달라 붙어다니는 것 같다. 걱정이 아이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 걱정거리가 많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얘기하고 떠들면서 걱정을 쫓으라고 알려준다. <국민서관·1만원>

▲작은 별의 과학여행=작은 박테리아가 백혈구와 함께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번신을 잘하는 물방울도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재미난 과학 원리와 자연현상을 재미있는 동화로 꾸미고, 사진과 설명을 덧붙여 자연스럽게 과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푸른나무·1만2000원>

그리운 유년시절의 아련한 추억

보리 닷 되

한승원 지음



첫사랑에 아파하고 글쓰기에 몰두하던 고교 시절의 나(주인공 승원). 격주에 한 번씩 80리 길을 걸어 고향집에서 자취방으로 짙어지고 오는 건 '쌀 닷 되'와 '보리 닷 되'다. 쌀은 다시 팔아 보리를 사고 차액은 책을 사는 데 쓴다. 이렇게 용돈을 얻는 대신 쌀 한 톨 들어있지 않은, 검은콩 왕도래 알처럼 거친 보리밥을 하루 두 끼 먹는다. 획일적인 군사교육(교련)에 적응하지 못해 고내 취주악대 클라리넷 연주자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보리 닷 되를 학교에 바친 덕분이다. 가난한 흠타버의 열두 살 난 딸이 걸보리 닷 되에 늙은 영감에게 팔려간 후 밤마다 '배고 불이기가 싫어 목을 매달았다는 전설의 새는 '까포리 타훗데'(걸보리 닷 되)라며 운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청춘기를 그린 장편소설 '보리 닷 되'를 펴냈다. 1979년 발표한 '해산 가는 길'의 연장선에 있는 성장소설이다. 전작이 유년기를 다뤘다면 이번 소설은 고교 시절부터 등단하기까지 이야기다. 소설의 주인공인 '승원'도 작가 자신의 이름이며 등단작도 작가의 등단작 제목인 '목선' 그대로다. 소설가가 쓴 자서전적 소설이라 문학소년 운운하는 고답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자못 진솔하고 생생하다. 소설은 고통스러운 교련 시간, 원더리 오금의 습진에 괴로워하던 승원의 고교 시절에서 시작한다.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승원은 골목길에서 종종 보곤 하던 군수집 딸 초영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누구에게나 청춘은 고통과 상처, 생채기를 동반하는 것. 무엇보다 그를 절망에 빠지게 했던 것은 예민하지 못한 자신의 감수성이었다. 시와 소설을 쓰며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던 승원이지만 초영의 오빠 이수성도, 친구인 문영철도 그에게 그 꿈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크고 탐스러운 유자를 보았던 태몽을 이야기하며 그를 격려한다. 승원은 방향을 거듭하지만 마침내 '목선'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이 도깨비에 게 영혼을 저당잡히고 쓴 소설"이라고 적고 있다.



장흥 '해산도굴'에서 작품활동중인 한승원씨.

작가는 삶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결단의 길로 이끄는 존재, '내 속의 시꺼먼 놈'(때론 도깨비)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다.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히고 젊은 한 생을 새로이 산 파우스트처럼 글쓰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노 소설가의 집념은 사투 비장하기까지 하다. 이 소설이 절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특히 문학청년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더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할 수 없

만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보리 닷 되' 이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쓸 계획이다.

15년 전 고향인 장흥에 내려와 '해산도굴'에 자리를 잡고 바다를 시원(始原)으로 한 작품들을 꾸준히 써오고 있는 작가는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탈리아 사람들의 음식문화

음식 이야기

엘레나 코스투코비치 지음



파스타 등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통해 이탈리아의 문화를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러시아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20년 넘게 살며 러시아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는 엘레나 코스투코비치가 펴낸 '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 이야기를 좋아할까?'는 이탈리아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 그리고 그곳 식탁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그 땅에 담긴 기억을 되새겨보는 행복한 문화여행기이자 인문학서다.

저자는 이탈리아 특유의 식문화를 밀라노·베네치아 등 각 지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상징(올리브 오일, 파스타, 순례자, 전제주의 등)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눠서 구성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음식 코드는 "요리 분야 뿐만 아니라 역사·지리·농업·동물학·민족지학·디자인·응용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복합적인 정보를 형성하고 설명해주는 키워드"다.

이탈리아 전통과 유산을 대표하는 '반카델라 델라 쿠치나'상 수상작이며 요리계의 오스카상 '2010 IACP Cookbook Award'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움베르코 에코가 서문을 썼다. <랜덤하우스코리아·2만3000원>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장수·행운 상징' 두루미 이야기

천년학을 꿈꾸다

이종렬·이기섭 지음



두루미, 한자로는 학(鶴)이라 불리는 이 새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장수와 행운, 조화와 평화의 상징으로 존중되고 있다.

사진작가 이종렬씨와 두루미 연구가 이기섭 박사가 우리나라를 찾은 '두루미'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두루미, 천년학을 꿈꾸다'를 펴냈다. 책은 저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두루미가 찾아오는 최전방 DMZ에서부터 강원 주남저수지와 순천만 같은 우리나라 최남단 습지마을까지 두루미들과 함께 지내며 만든 현장보고서이자 사진집이다.

저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두루미 서식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번식지에서 이들의 신비로운 생태를 연구했으며, 이들의 생활사를 아름다운 사진으로 담아냈다.

마치 눈앞에 보듯 생동감 있는 설명과 아름답게 담아낸 두루미 사진들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왔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우리 이웃' 두루미의 현실과 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책 말미 '사진가 노트'에 최근 3년간의 두루미 모니터링 통계를 비롯한 두루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 두루미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필드가이드·3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느리게 머무는 삶의 행복

지리산

김영주 지음



"비행기가 배를 탈 필요도 없었다. 어릴 적 외국어를 연습할 일도, 비상용 연락처를 수소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짐 가방의 무게가 초과될까봐 전전긍긍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는 간편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50년 동안 내 나라 지리산에 갈 생각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작가의 글’ 중에서)

20여 년 동안 잡지 에디터로 패션과 문화현장에서 보낸 김영주씨는 2006년 휴연히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마침내 손에 넣은 자유는 그녀에게 '느리게 머무는 삶의 행복'을 안겨주었고 이후 토스카나, 뉴욕, 프로방스 등을 누비는, '여행작가'라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다섯번째 여행서인 '지리산'은 이전의 기록들과는 사뭇 다르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 나라 땅이기에 가보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기에 '밖으로만' 몰랐던 그녀의 '여행스케'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들어오기까지 50년이나 걸린 게으름을 빌기라도 하듯 저자는 곡진재라는 한옥 고택에 여장을 풀고 여행객이 아닌 '구레막'으로 살며 마음을 연다.

지리산 생활을 통해 "다 살아보지 전까지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만남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저자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준다. <컬처그라피·1만3000원>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 521-6024 (FAX)521-6026

공장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 (1,500평)
- 건물 2,176㎡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

광산구 소촌동 평동공단내 2번도로점

- 대지 3305㎡ (1050평)
- 건물 1983㎡
- 공장총고높이 : 6m~8m
-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 전기 : 300kw
- 매매가 :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801-5354 (서평구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영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도스/유류기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면적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명에서 광주상생전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류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일동 자연녹지 매매

- 면적 : 약 3,870㎡
- 단가 : 평당 200만원
- 위치 :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합
- 지가 급매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커진 싼팜이 크든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놈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흡사나 하고 이변에도 반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중시 불만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니 꿈인지 생인지 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탈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피부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같은 실라폰이 처음 보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장광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돋쳐 나가고 있다. *가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희혼의 꿈, 파워마크100%, 분말포 대신하면 좋습니다.(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구매시 핫나경서적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분관 미국 적수인증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히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봉신판매 신고증 제188호) (G-FLOW)

1577-410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봉신판매 NO. 19-5301호) 010-8952-4114, 010-8558-4114

☎ 301-0036-8883-71 예광주:글로벌 핫나경 www.핫나경.kr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 최고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 본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용품 증명) 은 60% 대, 중, 소 10단계조절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모이제 고민 끝!

여성전문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의사와 약사가 명맥을 걸고 3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남보르게 고민해오던 탈모 무모증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 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지요? 모근에 영양 공급이 빠르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뿐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88-410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봉신판매 NO. 19-5301호) 010-5296-4114, 010-8952-4114

☎ 569-12-034826 예광주:베이지 www.핫나경.kr